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썰 (5)

사라지고 부서져온 그곳에 우리의 초상

‘낭 싱그레 가게’ 결과보고 내일부터 아트스페이스씨 예술가·시민작가 등 21명 평면·입체에 생명의 연대



김기미의 '걸어온 평화 춤추는 기도', 김지은의 '비자림로에서-지워지는 이름들'

그들이 '낭 싱그레' ('나무 심으리'의 제주 방언) 가자고 했을 때, 200명 가까운 이들이 모여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날짜를 분산해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행사를 치렀고 300그루의 어린 나무들이 새롭게 뿌리를 내렸다.

그곳에 나무 심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사라지고 부서져온 비자림로는 우리 시민의 이름과 같았어요." 이 글귀가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전시가 있다.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아트스페이스씨에서 열리는 '낭 싱그레 가게' 결과보고전이다.

'낭 싱그레 가게'는 비자림로 공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꾸러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지난 봄에 초목의 기운을 비자림로에 부려놓았지만 그곳이 무대가 된 싸움은 3년이 다 되어간다. 2018년 8월 30년~50년 수령의 삼나무 1000그루 가량이 2~3일 사이에 베어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저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과 보고전에는 비자림로에 나무 한 그루씩 심은 예술가, 시민

작가 등 21명이 출품했다. 고길천 작가는 한달 여 비자림로 삼나무 숲에서 진행했던 '부재' 등 프로타주 작업 일부를 전시하고 김성현은 삼나무로 깎은 '모아이'를 선보인다. 송동효는 비자림로에서 벌어진 일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영상 작품인 고승욱의 '그림자가 나무에게', 행정각대부투 위에 드로잉한 김지은의 '비자림로에서-지워지는 이름들', 비자림로숲이 처음 베어지던 날 슬픔에 잠겨있을 때 베어진 나무를 들고 춤을 추던 이를 바라보며 작업한 김기미의 '걸어온 평화 춤추는 기도', 노슬미의 '응어리', 김수오의 사진 '위무', 고경화의 '두 개의 파편' 등도 볼 수 있다.

이들의 '결과 보고'는 스러지는 삼나무가 단지 그 나무 하나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동시에 위기를 겪는다. 고길천 작가

가 도록제작비를 지원해 만든 '낭 싱그레 가게 결과보고전' 인쇄물에 실린 제주 김수열 시인의 '낭 싱그레 사람들'의 한 구절을 옮겨 본다. '인간 없이 나무는 수천만 년을 살아왔지만/ 나무 없이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둘러보면 지구 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종이 산다/ 하나는 열심히 낭을 싱그는 인간종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낭을 그치는 인간종이다// 게른 우린 누게인가?/ 지금 어디에 이신가?'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프레데릭 벡의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 상영, 제주 전방위 예술가 한진오의 '나무와 돌에 깃든 신성' 강연, 고길천 작가의 '요셉 보이스, 7000그루의 떡갈나무' 강연이 잇따른다. 아트스페이스씨가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준 전시다. 문의 064)745-369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업 미술인 작품 구입 통로 넓히자

코로나 긴급 구입 판 세상 도립미술관 역대 작품 구입 제주 작가 비율 67% 집계 제주 미술 활성화 방안으로 구입·활용 지속 정책 나와야

코로나19 여파로 시각예술 분야에도 '긴급 지원 사업'이 늘고 있다. 국립미술관에서 코로나 탓에 미술 창작·유통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긴급 작품 구입 공모에 나서고 문화재단에서도 미술품 구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역 미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작가 작품을 꾸준히 사들인 문화재단도 있다. 제주 밖의 이야기다.

▶제주 연구 작품 전체 소장품의 절반=지난달 전북도립미술관은 총 2억원 이내 규모의 '긴급 작품 구입'을 공고했다. 예술활동증명을 갖추지 않아도 거주지가 전북이거나 출생지가 전북인 전업 작가 중에 일정한 전시 경력 등이 있으면 1인 1점씩 250만원 내외로 심사를 통해 구입한다고 공지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코로나

19 예술백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5억원을 투입해 경기 전업 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 구입을 진행하고 이를 수요처에 대여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했다. 1인당 1점씩 300만원 이내로 구입하는 '소액 다진' 방식으로 더 많은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 영역에서 제주 작가 작품을 사들이는 경로는 국립미술관에서 시행하는 작품 수집이 거의 유일하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소속 제주현대미술관 2곳에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구입(599점), 기증(552점), 관리 전환(146점)을 포함 총 1297점의 소장품 중에서 제주 작가 작품 수는 767점으로 전체의 59%로 나타났다. 도립미술관의 작품 구입비는 개관 직전인 2008년 4억1000만원에서 2020년 5억5000만원으로 대체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7억6000만원까지 뛰었다. 현대미술관은 올해 1억5000만원 등 1억원 내외였다.

이같은 예산으로 소장한 제주 작가 작품은 얼마나 될까. 2020년 2월 기준 도립미술관이 10년 넘게 구입한 349점 중에서 제주 작가 작품은 234점(67%)으로 파악됐다. 현대미

술관은 231점 중에서 103점(44.5%)이 제주 작가 작품이었다.

▶작품 사들여 희망 공공기관 등 대어=제주미술사 정립과 연구에 무게를 싣겠다는 도립미술관은 앞으로 국내외 화단에서 인정받는 제주출신 작가 작품 구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경우 작고·원로·중진 작가에 비해 경력이 짧은 신진 작가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제주미술에 활력을 불어넣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미술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3년 이상 창작 활동을 하고 일정한 전시 경력이 있는 인천 연고 작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미술품을 구입해왔다. 이 과정을 거쳐 구입한 작품들은 희망하는 공공기관, 문화시설, 기업, 단체, 전시행사 등에 대여한다.

제주에서도 국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재단이 주축이 되어 매년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지역 작가 작품을 구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주 미술시장 활성화에 노력해온 기존 아트페어, 갤러리와 연계해 도내 전업 작가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할 때다. 전선희기자

화려한 색감으로 붙잡은 소리의 파장

타악주자 활동 최소화 작가 제주 현인갤러리 초대전시

발화되면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소리를 화면에 붙잡은 전시가 있다.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에서 열리는 최소소리 초대전이다.

이번 전시는 본질적인 속성이 다른 소리와 미술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소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진다. 반면 전통적인 미술은 일정한 시각적 구현물로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소리가 무형의 것이라면 미술은 유형의 것에 속한다.

최소리 작가는 타악기 연주자로 잘 알려져있다. 공연 연출과 총감독을 맡아 '최소소리와 자유인 콘서트 벽(癖)', '아리랑 파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월드투어공연 등을 이어왔

다. 복채를 쥐고 곳곳을 누벼오는 동안 그는 그림 작업도 병행했다. 근래엔 온전히 그림에만 전념하고 있다.

제주 초대전에선 '소리를 본다(Seeing Sound)' 연작이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의 파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풀어내듯, 알루미늄에 혼합재료를 이용해 화려한 색감으로 소리의 무늬를 '그려'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와 에너지에는 각기 그들만의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매신저이고 싶다"는 최 작가는 "연주와 춤, 노래, 글, 그림이 모든 행위는 나에게 똑같은 하나다. 음악과 미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현인갤러리는 제주시 도령로 이화오피스텔 2층에 있다. 문의 747-1500. 전선희기자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긴여행' (알루미늄에 혼합재료, 2020).

제주 4월과 만나는 광주 5월의 정신

5·18 40주년 기획전시

제주4·3평화기념관에 5월의 정신이 깃든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휴관 끝에 제주지역 공공시설 재개방에 맞춰 이달 18일 문을 여는 4·3평화기념관은 이날부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획전을 펼친다.

'4월에서 5월로'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정용화)이 공동 주최한다. 5·18이 지향했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대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 전시에는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의 민주화운동 전개과정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종의 5·18기록물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 5·18 기록물의 등재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걸음을 시작한 제주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시는 30일까지 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관람 가능하다.

재개관 당일부터는 4·3평화기념관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백배지를 1인 1개씩 무료로 배부하고 관람내용을 SNS에 공유한 방문객은 동백스카프, 동백우산 등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 723-4354. 전선희기자

문화누리카드 코로나 영향 도서 등 비대면 사용 늘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최근 3년 간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 이용액 14억5017만원 중 '도서' 50.3%(7억2942만원), '영화' 19.3%(2억8056만원)였다. 2020년에는 6월 10일 기준 이용액이 '도서' 65.6%(5억1477만원), '영화' 0.4%(291만원)로 '도서' 분야 비중이 증가하고 '영화'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온라인을 통한 문화활동 비중도 2018년 6.9%(1억222만원), 2019년 7.4%(1억2413만원), 2020년 13.5%(1억600만원)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선희기자

25평 주택기준 연 400만원

**너는 월로 돈버니?
난 내 지붕에서 햇빛으로 돈번다!**

나눔빛은 단독주택 옥상부터 축사, 창고 및 상업시설의 지붕 위에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맞춤형 브랜드입니다.

064-745-0420

네이버에 나눔에너지를 검색해 보세요!

2020.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20 3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TEL. 064-745-0420

FAX. 070-8812-0420